

2025년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5년 6월 17일(금) 16:00~17:00

■ 장 소 : 대면 회의 진행 (강북구가족센터 4층 다목적강당)

■ 참석자 : 총 15명

운영위원	배석
6명	9명

■ 세부내용

시간	내용	비고
16:00-16:05	접수 및 출석확인	과반수 참석
16:05-16:30	1분기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및 2분기 보고사항	
16:30-17:00	사업관련 논의	

■ 회의내용

1. 보고사항

- 1) 2025년 1분기 구성 변경 보고
- 2) 2025년 1분기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 3) 2025년 2분기 보고사항
 - 2025년 센터 사업 실적 보고
 - 2025년 센터 주요 사업 계획 및 진행보고
 - 2025년 2분기 센터 운영보고
- 4) 2025년 예산 보고
 - 2025년 2분기 확정내시 변경 내역
 - 2025년 2분기 수입 및 지출보고
 - 2025년 2차 추가경정 및 예산전용 보고

2. 논의사항

-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

3. 질의사항

구 분		내 용
질의사항	1	-1인가구 중장년 대상 관계형성 사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여짐. 청년 대상으로는 주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궁금함. : 1인가구 청년 대상 사업은 문화, 체험 위주의 사업들이 대기 인원이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임. 센터에서 파악하기로는 청년층은 본인들이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에만 관심을 보이는 성향이 높고, 중장년은 정서나 관계형성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의외로 반대로 청년층이 취업 등의 사유로 관계형성에 관심이 있고 중장년층이 문화나 체험활동에 관심이 있을 줄 알았음. : 요즘 청년들의 특성 상,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마음을 드러내는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음. 그러다보니 이런 문화나 체험활동 같은 공통 관심사로 만나게 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꾸준히 만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 같음.
	2	-관내 1인가구 스토킹 피해자에게 안심 홈 세트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의 수요예측이나 계획했던 대로 신청이 들어오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함. : 현재 지원인원 대비 40%정도 신청자가 들어온 상황이며, 여러 홈페이지에 해당 사업 홍보물을 올리고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음.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센터에서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일괄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임.
		-이 사업을 매년 진행해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자들이 줄거나 이런 부분 없이 꾸준히 신청자들이 있는 상황인지, 그렇다면 강북구가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함. : 아무래도 강북구에 중장년 분들이 거주하시는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이 많고 빌라에 거주 중이신 분들이 안전 물품에 대한 욕구들이 있음. 그러다보니 꾸준히는 아니지만 신청자는 계속 있는 상황임. 그렇지만 작년에 안심홈세트를 많이 지원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지원 인원을 감했음. 동일한 사업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게끔 안내 되고 있고 신규 분들만 신청 가능함.

4. 주요의견

구 분	내 용
논의사항	-현재 강북구에는 4개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4개소 중 1개소만 화-토 근무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나머지 3개소도 주말에 운영하고자 하지만 주말근무 보조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공동육아나눔터에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주말근무 때문이

	<p>아닐까 생각함. 화-토 근무자에 대한 월급 부분에 차이가 있어 야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듦. 관련해 타센터에서도 주말운영은 주말출근에 대한 어느 정도 급여보전금이 들어갔을 때 채용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음.</p> <p>: 개인적으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센터는 지침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출근자라고 임의적으로 급여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p>
	<p>-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고자 순환 근무를 진행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직원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표준화, 유기적인 협력과 효율성 증대, 직원 만족도 및 소속감을 높이려고 함.</p> <p>: 공동육아나눔터 담당자가 순환근무를 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함. 자주 이용하는 공간의 담당자와 이용자와의 친밀감이 있는데 다른 담당자로 바뀌면 처음부터 관계를 다시 쌓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음.</p> <p>: 해당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다만 순환근무는 이용자와의 친밀감을 저해하려고 진행하기 보다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향 중 하나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음.</p> <p>: 혹시 공동육아나눔터가 여러 개 있는 자치구들을 확인하여 어떻게 관리하는지, 안내 지침 등을 공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인근 자치구끼리 협력해서 공동의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드는 것은 어떨지 생각함.</p> <p>: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공통 지침은 존재함. 다만 자치구별로 특성이 다양한 부분이 있어 매뉴얼이나 지침을 공유받는 것이 어렵고 공동제작도 쉽지 않음. 해당 논의를 안건으로 제시한 것은 공동육아나눔터 모든 공간에서 어느 누가 와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것임. 위원분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고려해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힘쓰겠음.</p>

■ 회의진행사진



2025년 6월 17일
강북구가족센터